

## 牡丹皮의 效能主治에 대한 通時的 考察

이승호<sup>1</sup>, 금지혜<sup>2</sup>, 김병택<sup>2</sup>, 홍지은<sup>2</sup>, 전신희<sup>2</sup>, 도의정<sup>2,3</sup>, 이금산<sup>2\*</sup>

1.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병연구단
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3.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대사기능제어연구센터

### The Korean Medicinal Action and Indication of Moutan Radicis Cortex through Diachronic Review

Lee Seung-ho<sup>1</sup>, Keum Ji-hye<sup>2</sup>, Kim Byeong-taek<sup>2</sup>, Hong Ji-eun<sup>2</sup>, Jun Shin-hee<sup>2</sup>, Doh Eui-jeong<sup>2,3</sup>,  
Lee Guemsan<sup>2\*</sup>

1. Mibyeo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 Dep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
3. Center for Metabolic Function Regulation, School of Medicine, Wonkwang Univ.

#### Abstract

To clearly analyze the pharmacological actions of Moutan Radicis Cortex (MRC), we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 We selected major herbal books of Qin (秦), Han (漢), Tang (唐), Song (宋), Jin (金), Yuan (元), Ming (明) and Qing (清) dynasty, and analyzed the efficacy and the main treatments. In Qin and Han Dynasty, MRC was used to disperse blood stasis without application of the deficiency (虛) and excess (實). In Tang-Song Dynasty, although the range of application was expanded but application of the deficiency (虛) and excess (實) was the same as previous dynasty. By the Jin-Yuan Dynasty, the deficiency and excess were applicated but its pharmacological actions was not clearly established. Widely recognized mechanism of MRC for removing pathogenic heat from the blood (涼血) and dispersing blood stasis (散瘀) nowadays was deeply discussed from the Ming Dynasty and established in the Qing Dynasty.

**Keywords:** Moutan Radicis Cortex, *Paeonia suffruticosa*, herb, action, indication

\* Correspondence: 이금산(Lee Guemsan. Tel: +82-63-850-6985 E-mail: rasfin@wku.ac.kr)

· Received 2015-03-16, accepted 2015-03-23.

## 서론

牡丹皮는 작약과(Paeoniaceae)에 속한 모란(牡丹) *Paeonia suffruticosa* Andr. 의 根皮로 淸熱涼血, 活血散瘀의 효능으로 溫毒發斑, 吐血衄血, 夜熱朝涼, 無汗骨蒸, 經閉痛經, 癰腫瘡毒, 跌撲傷痛을 치료<sup>1)</sup>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요한 淸熱涼血의 효능 외에도 活血의 효능이 있으면서 吐血衄血와 같은 출혈성 병증에 활용 되거나 溫毒과 같은 實證과 骨蒸과 같은 虛證의 서로 상반되는 병증에 응용되어 그 약리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sup>2)</sup>. 이는 고대로부터 누적되어 온 효능 주치가 시대적으로 구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채 현대까지 이어져 남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재의 한방 효능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醫書 및 醫論을 통하여 牡丹皮의 한방 효능 및 주치를 다섯 시대의 주요 문헌을 통해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 재료 및 방법

각 시대의 대표 서적 중 牡丹皮의 효능주치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된 것과 다른 醫書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 아닌 독창적 견해를 위주로 서술된 것을 위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다만, 明清 시대에는 본초의 한방효능에 대한 醫論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두 시대를 별도로 구분하였고, 《湯液本草》 내에 인용된 《衛生寶鑑·藥類法象》와 같은 서적은 시대순으로의 분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별도로 구분하고 참고문헌에 표기하였다.

- 秦漢代 : 《神農本草經》<sup>3)</sup> 《名醫別錄》<sup>4)</sup> 《藥性論》<sup>5)</sup>
- 唐宋代 : 《日華子本草》<sup>6)</sup> 《珍珠囊》<sup>7)</sup>
- 金元代 : 《衛生寶鑑·藥類法象》<sup>8)</sup> 《湯液本草》<sup>9)</sup>
- 明代 : 《本草蒙筌》<sup>10)</sup> 《本草綱目》<sup>11)</sup> 《景岳全書》<sup>12)</sup> 《本草經疏》<sup>13)</sup> 《本草乘雅半偈》<sup>14)</sup>
- 清代 : 《本草崇原》<sup>15)</sup> 《本草新編》<sup>16)</sup> 《本草備要》<sup>17)</sup> 《本經逢原》<sup>18)</sup> 《本草經解》<sup>19)</sup> 《神農本草經百種錄》<sup>20)</sup> 《得配本草》<sup>21)</sup> 《本草求真》<sup>22)</sup> 《本經疏證》<sup>23)</sup> 《本草思辨錄》<sup>24)</sup>

## 결과

선정한 古醫書에서 牡丹皮의 효능 또는 주치를 발췌하여 정리하면 표(table 1)와 같다.

Table 1. Actions and indications of Moutan Radicis Cortex in old medical books

Period	Book	Action or Indication
秦漢	神農本草經	主治寒熱 中風 痲癩 經 驚癇 邪氣 ... 除微堅 瘀血留舍腸胃 安五臟 治癰瘡
秦漢	名醫別錄	主除時氣 頭痛 客熱 五勞 勞氣 頭腰痛 風嘔 癩疾
秦漢	藥性論	能治冷氣 散諸痛 ... 治女子經脈不通 血滯腰疼
唐宋	日華子本草	除邪氣 悅色 通關膝血脈 排膿 通月經 消撲損瘀血 續筋骨 除風痺 落胎 下胞 產後一切 女人冷熱血氣.

唐宋	珍珠囊	…陰中寒陽… 治腸胃積血 及衄血, 吐血之要藥 及治無汗骨蒸.
唐宋 金元	衛生寶鑑· 藥類法象	治腸胃積血 及衄血 吐血之要藥 犀角地黃湯中之一味也
金元	湯液本草	… 陰中微陽 … 珍云 驚骨蒸, 易老云 … 故能瀉陰中之火. 牡丹皮 手厥陰 足少陰 治無汗骨蒸 地骨皮 足少陰 手少陽 治有汗骨蒸也.
明	本草蒙筌	… 散冷熱血氣攻作於生產後 …
明	本草綱目	牡丹皮 治手足少陰 厥陰四經血分伏火. 蓋伏火即陰火也 陰火即相火也. … 和血生血涼血 治血中伏火 除煩熱.
明	景岳全書	… 能和血涼血生血 除煩熱 善行血滯 滯去而鬱熱自解 故亦退熱 …
明	本草經疏	苦寒除血熱 入血分涼血熱之要藥也. 寒熱者 陰虛血熱之候也. 熱去則血涼 涼則新血生 陰氣復 癰瘡者 熱壅血瘀而成也 涼血行血 故療癰瘡. 辛能行血 苦能泄熱 故能除血分邪氣 及癰堅瘀血留舍腸胃 泄熱涼血之功也. 此皆血因熱而枯之候也. 血中伏火非此不除 故治骨蒸無汗.
明	本草乘雅 半偈	… 症堅瘀血 留舍腸胃 固肝主藏血 堅瘀留礙 …
清	本草崇原	乃心主血脈之藥也 … 傷其血脈 致身發寒熱…
清	本草新編	… 蓋此火乃相火 而非火 相火者 虛火也. … 牡丹皮之解骨蒸 解骨中之髓熱也 地骨皮之解骨蒸 解骨中之血熱也. 骨中不止髓 髓之外必有血以裹之. 骨中之髓熱 必耗其骨中之血矣 骨外之血熱 必燄其骨中之髓矣. 故治骨蒸者 二味必須兼用 不可以有汗用地骨皮 無汗用牡丹皮也.
清	本草備要	瀉伏火而補血. … 破積血 積瘀不去則新血不生. 通經脈 為吐衄必用之藥. 血屬陰本靜 因相火所逼 故越出上竅. 治中風五勞 驚癇癰瘡 筋脈伸縮抽掣為癰瘡 或手足抽掣 口眼歪斜 卒然眩仆 吐涎身軟 時發時止為癇. 皆陰虛血熱 風火相搏 痰隨火湧所致
清	本經逢原	… 為其性專散血 …
清	本草經解	… 入手太陽寒水小腸經…肝者 風木之臟也 肺金不能制肝 肝風挾濁火而上逆 中風癱瘓 驚癇之症生焉 丹皮辛寒益肺平肝 … 小腸者 受盛之官 與心為表裡 心主血 血熱下注 留舍小腸 瘀積成癰 形堅可徵
清	神農本草經 百種錄	主寒熱 中風癰瘡 癰驚癇邪氣 皆肝氣所發之疾. 除癰堅 瘀血留舍腸胃 色赤走血 氣香能消散也. 安五臟 五臟皆血氣所留止 血氣和則無不利矣. 療癰瘡. 清血家之毒火.
清	得配本草	… 瀉心包伏火 清體中正氣 除血中內熱 退無汗骨蒸. 以其善行血滯 滯去而散熱自解 … 丹皮 川柏 皆除水中之火 然一清燥火 一降邪火 判不相合. 蓋腎惡燥 燥則水不歸元 宜用辛以潤之 涼以清之 丹皮為力.
清	本草求真	瀉腎血分實熱 治無汗骨蒸 … 陰虛又兼邪鬱 故見無汗骨蒸 … 能瀉陰中之火 使火退而陰生 所以入足少陰而佐滋補之用
清	本經疏證	… 凡血之所至 氣必至焉 血不宣則氣亦壅 氣壅則不能衛外而為固 … 血宣氣行 外入者不解自去 此牡丹之首功 … 癇因於驚 驚則氣血亂 氣亂則入於經脈 心氣為之滿大 血亂則出於血室 肝氣為之小急 … 或由癇而癰瘡 此則牡丹之所能治矣 … 曰中風癰瘡 則與癰瘡之不由中風者有別矣. … 驚癇邪氣 則與驚癇之無邪氣者有別矣. … 獨是牡丹入心 通行血分 能行血中久病癰結 雖至化膿 亦所擅長 假如血結不流 不有血脈虛而縱弛者乎 不有脈隨血聚而拘急者乎 不有因血結而熱生 因熱薰而驚癇者乎? 氣血既結 則不能流動之氣血聚而歸之 故腹中既有形 兼嘔血者溺血者下血者 皆為牡丹所宜.
清	本草思辨錄	心為牡臟主血脈 … 故能通血脈除血熱 … 直抵下焦 故又瀉腎臟陰中之火及肝熱之由腎而致者 … 丹皮是治陰虛生熱之血結 … 丹皮去瘀生新而養陰 堪入於補劑.

## 고찰

秦漢의 《神農本草經》에서 除微堅 瘀血留舍腸胃 安五臟의 효능으로 癰瘡에 응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散瘀’의 효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또한 寒熱 中風 痲痺 瘰 驚癇 邪氣 등의 주치증이 病因에 따른 구분이 없이 기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시대의 《名醫別錄》에서는 五勞 勞氣와 같은 虛證에 대한 기술이 있으며 《藥性論》의 臟虛로 인한 冷氣 또는 疝臍痛과 治女子經脈不通 血滯腰疼 등의 陰證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虛證에도 사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秦漢 시대의 牧丹皮는 散瘀의 효능이 있으며 그 적응증에는 虛實을 구분하지 않았던 약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唐宋의 《日華子本草》에서는 續筋骨 除風痺의 효능이, 《珍珠囊》에서 ‘治無汗骨蒸’의 기술이 등장하나 그 병인에 대한 기술은 없었다. 宋末 金初期의《衛生寶鑑·藥類法象》에서는 治腸胃積血 及衄血 吐血之要藥의 효능이 기술되어 있다. 活血祛風과 散瘀止血的 효능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볼 때 이 시대는 牧丹皮를 이전 시대의 효능범위에서 점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다만 《日華子本草》의 產後一切女人冷熱血氣라는 기술로 미루어 보건대 이 시대에도 역시 虛實의 구분은 미미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金元의 《湯液本草》는 《珍珠囊》을 인용하여 ‘無汗骨蒸’의 주치를 언급함과 동시에 地骨皮의 효능과 비교하면서 ‘無汗骨蒸’에 대한 원인을 陰中之火라 제시하였다. 이를 미루어볼 때 이 시대의 牧丹皮는 ‘陰虛熱과는 다른 熱證’에 적용한다는 인식이 시작되었으나 명확하게 한방작용기전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金元 시대에는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牧丹皮의 응용에 있어 虛實의 구분이 미약하나마 이루어졌다고 사료된다.

明代의 《本草綱目》에는 ‘血分伏火’ 또는 ‘陰火’로 인한 병증에 응용한다고 하여 이전 시대와 견해를 같이 했으나 ‘和血生血涼血’이라하여 涼血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本草經疏》는 ‘除血熱 入血分涼血熱之要藥也’이라 함과 동시에 그 적응증에 대하여 ‘血因熱而枯之候’라는 血枯라는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약물이 적용되는 病因 및 病機를 한정하였다. 즉, 血이 熱로 인해 枯해지는 것을 血分の 邪熱를 제거하여 涼血이 이루어지는 기전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현대에 牧丹皮를 清熱涼血藥으로 분류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이라 하겠다. 또한 동일한 서적에서《神農本草經》의 ‘寒熱’을 ‘陰虛血熱之候’라고 정의하여 外邪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本草乘雅》에서는 ‘固肝主藏血 堅瘀留礙’이라하여 五臟六腑의 生理 및 病理와 연계시키기도 하였다. 《景岳全書》에서는 ‘善行血滯 滯去而鬱熱自解 故亦退熱’라 하여 血行의 의미를 ‘血滯를 行한다’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血滯를 풀어서 熱이 물러난다고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明代에는 牧丹皮를 血熱로 인한 血枯 또는 血滯를 涼血 또는 行血하여 치료하는 약물로 인식하였으며 적용하는 實證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고 사료된다.

清代의 《本草備要》에서는 散瘀의 개념이 강조됨과 동시에 ‘血屬陰本靜, 因相火所逼, 故越出上竅’라 하여 吐血, 衄血의 원인을 火熱로 제시하였다. 《本經逢原》에서는 ‘爲其性專散血’이라 하여 血滯에 응용함을, 《本草崇原》에서는 ‘傷其血脈 致身發寒熱’이라 하여 外邪로 인한 熱證이 아님을 언급하였다. 《本草求真》에서는 ‘血分實熱 治無汗骨蒸’이라 하여 血熱을 치료하는 약물임을 암시하였으며, 《得配本草》에서도 ‘除血中內熱 退無汗骨蒸’라는 유사한 기술이 있다. 《本草經解》에서는 肝 이외에 心小腸과의 연관성도 제시하고 있으나 결국 제시된 설명은 血熱이라는 큰 적용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神農本草經百種錄》에서도 또한 ‘清血家之毒火’라고 언급하였다. 《本經疏證》에서는 ‘血宣氣行 外入者不解自去 此牡丹之首功’이라 하여 血結不流를 치료하는 즉, 散瘀의 효능을 강조하였다. 《本草新編》에서는 ‘牡丹皮之解骨蒸 解骨中之髓熱也 地骨皮之解骨蒸 解骨中之血熱也’라 하여 다소 특이한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어지는 서술을 살펴보건대 저자는 일반적인 血熱과 虛熱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

로 앞서의 여타 서적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本草思辨錄》에서는 牧丹皮의 효능을 ‘通血脈 除血熱’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한방효능인 涼血 散瘀와 다르지 않다. 이상으로 淸代의 牧丹皮에 대한 서술은 明代와 그 개념은 유사하지만 각 적응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牧丹皮는 明代에 이르러서야 血熱로 인한 血滯 또는 血枯로 인한 증상에 涼血散瘀를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약물로 확연하게 인식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결론

牧丹皮의 효능 및 주치를 주요 본초서를 통해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秦漢代에는 散瘀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虛實의 구분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唐宋代에는 응용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역시 虛實의 구분적용에 대한 인식은 이전 시대와 대동소이 하였다.
3. 金元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虛實을 구분하여 응용하였으나 명확한 약리기전이 정립되지 않았다.
4. 현대에 통인되는 牧丹皮의 涼血 散瘀의 효능에 대한 기전은 明代에 입론되었으며 淸代에 이르러 확립된 것으로 사료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과제고유번호 : HI14C075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1.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편저. 본초학. 서울:영림사. 2006:237-8.
2. 주영승. (증보)운곡본초학. 전주:도서출판 우석. 2013:482-5.
3. unknown. 神農本草經. 秦漢, unknown. In:한글 신농본초경. 서울:의성당. 2012:350.
4. 陶弘景. 名醫別錄. 漢, unknown. In:中華本草.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v3:528-35.
5. 甄權. 藥性論. 唐, unknown. In:中華本草.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v3:528-35.
6. unknown. 日華子本草. 唐宋, unknown. In:中華本草.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v3:528-35.
7. 張元素. 珍珠囊. 金元, 1186. In:中華本草.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v3:528-35.
8. 羅天益. 衛生寶鑑·藥類法象. 金元, 1281. In:王好古. 湯液本草. 金元, 1289.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9기 졸업준비위원회. 國譯 湯液本草. 서울:대성문화사. 1996:277-8.
9. 王好古. 湯液本草. 金元, 1289.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9기 졸업준비위원회. 國譯 湯液本草. 서울:대성문화사. 1996:277-8.
10. 陳嘉謨. 本草蒙筌. 明, 1565. 本草蒙筌.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147.
11. 李時珍. 本草綱目. 明, 1590. 本草綱目(交点本)上下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852-4.
12. 張介賓. 景岳全書. 明, 1624. 景岳全書. 대구:동양종합통신교육원출판부. 1982:927.

13. 繆希雍, 本草經疏. 明, 1625. *In*:中華本草.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v3:534.
14. 盧之頤, 本草乘雅半偈. 明, 1647. *In*:中國醫學大系, v47. 서울:여강출판사. 1987:223-6.
15. 張志聰, 本草崇原. 清, 1674.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1129.
16. 陳士鐸, 本草新編. 清, 1691. 本草新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162-4.
17. 汪昂, 本草備要. 清, 1694. 楊東喜, 本草備要解釋. 익산:이리 원광한의대 도서관. 1987:138-40.
18. 張璐, 本經逢原. 清, 1695. 本經逢原.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60-1.
19. 原題清, 叶桂, 本草經解. 清, 1724. *In*:新編 中藥大辭典. 台北:新文豐出版. 1984:924-9.
20. 徐大椿, 神農本草經百種錄. 清, 1736. 徐靈胎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69.
21. 嚴潔, 施雯, 洪煒, 得配本草. 清, 1761. *In*:中華醫書集成.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9;5(1):36.
22. 黃宮繡, 本草求真. 清, 1769. 本草求真. 서울:의성당. 1997:185.
23. 鄒澍, 本經疏證. 清, 1832. 本經疏證.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190-3.
24. 周岩, 本草思辨錄. 清, 1904. *In*:珍本醫書集成.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6:54-7.